

슬기로운 적극행정 공무원

< 8.31일 금주의 주인공 >

주인공	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홍성준
“적극적 규정 해석으로 영세 수리조선소를 살리다” □ (상황) 항만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'19.6월부터 경비검색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하자, 영세한 수리조선소에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 □ (적극) 홍 서기관은 기존에 부두와 수리조선소 안벽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던 관행을 깨고 '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'을 수리조선소 입장에 맞게 해석하여 부두와 그 외 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을 차등해서 적용 * 부두 출입구는 경비·검색 인력 2명 이상 배치, 수리조선소 안벽은 1명 이상 배치 ○ 이해당사자와 국가보안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차등 기준을 마련하여 선 조치하고, 이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하게 법령개정까지 완료 ☞ 관행처럼 해오던 기존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극 해석하여 영세 수리조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+ 수리조선소의 항만보안시설 유지	

주인공	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운용, 김형수
“밤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” □ (상황) 어린이보호구역, 비신호 횡단보도 등은 야간 교통안전에 특히 취약 함에 따라 보행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□ (적극) 성 주무관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'활주로형 횡단보도'를 도입 추진 ○ 그러나,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규정인 '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'과 배치 ○ 포기하지 않고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규정을 개선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→ 교통사고 예방 효과(사고재발률 1%) + 부산 등 벤치마킹  설치 전  설치 후 ☞ 규정 탓하지 않고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는 적극행정이 돋보이는 사례	